

이른 봄 꽃샘바람은 남녘의 봄기운을 가득 싣고 와 봄꽃 나뭇가지 위에서 아름다운 꿈을 잉태하고 있다. 지난밤 메마른 대지위에 촉촉이 봄비가 내리더니 봄꽃나무들의 꽃망울이 한결 도톰해 젓고 넓은 들녘은 봄내음으로 가득해졌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들녘으로 나가보면 양지바른 산모퉁이에 봄나물을 캐려는 아낙들의 정겨운 모습이 보이고, 친근한 마음이 든다. 봄이 오고 있다. 아직은 먼 산에 잔설이 남아 있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노래한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는 소리'**

봄은 소망의 계절이다. 겨우내 냉랭하게 얼어붙은 마음들을 다사로운 햇살과 훈풍으로 어루만져 주어 잠들었던 심리관상들이 다시 활력을 찾는다. 서막한 이웃일지라도 굳게 닫았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봄꽃같이 화사한 미소를 보내고 싶어지는

생동의 계절이기도 하다.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야산을 오른다. 얼음에서 풀린 갈색의 투박한 흙에서 풍겨오는 싱그럽고 건강한 대자연의 내음과 숨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울 동안 너그러운 대지의 품안에서 소롯이 잉태되었다가 머리를 내밀 듯 뽀족하게 올라오는 연둣빛 새싹들의 양증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신비함과 경이로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연약한 연둣빛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까지 언 땅 밑에

서 고통을 참고 견디어 낸 실낱같은 작은 뿌리들의 인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흘러가는 구름, 소나무 숲 사이로 흐르는 바람, 수목 위를 비추이는 햇살, 그 모두가 모진 추위를 견뎌낸 땅 속 생명체들의 힘겨운 인내와 언 땅을 뚫고 세상에 나온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같다.

봄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혼신을 다하여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와 근로자들

의 활기찬 모습에서 소망의 날개를 달고 찾아온다. 포도원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들의 힘찬 팔뚝에서, 땅을 지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굳은 눈발을 기경하는 농부들의 투박한 어깨 위에서 봄은 청보리 빛 소망으로 다가온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욕망에만 눈이 어두운 나머지 제 목소리만 높이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욕망에 찌든 무거운 외투를 벗어 버리고**

이렇듯 좁기만 한 현실이지만 겨울이 있기에 봄이 오듯이 스산한 현실 속에서도 청보리빛 봄을 맞이하려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봄은 진정 순백의 목련꽃처럼, 개나리꽃 같은 화사한 모습으로 찾아오리라.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욕망에 찌든 무거운 외투를 벗어 버리고,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목련꽃처럼 청순한 미소를 짓는, 한 그루의 봄꽃 나무가 되어 보도록 하자.

**황연옥 칼럼**

시인, 동화작가



**봄이 오는 길목**

**우리 사는 이야기**

김지연(칼럼위원, 주부)



**멘토에 관한 사색**

서울메트로 스토리텔링 소재공모 우수상에 당선된 '진정한 용기'라는 글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4호선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리 많았는데 가운데는 텅 비어있고 한쪽으로는 사람들이 붐벼 있었다. 궁금했던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 자리를 확인하였는데, 그 순간 눈을 감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어느 분인지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날 먹은 것을 다 게워 놓았던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에티켓이 어찌느니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하느니, 이곳저곳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나 또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안 좋은 소리를 조금 거들었다.

그 때, 강마른 체구의 40대 초반의 한 남자분이 가방을 구토되어 있는 곳에 놓은 뒤 선반에 놓여있는 신문들을 모으신 후 그곳을 열심히 닦는 것이었다.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을 다 닦으신 후 그 신문을 문이 열리자 뛰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신 후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꺼내 읽으셨

다. 악수라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

三人行, 必有我師焉(삼인행 필유아사인)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택기선자이종지 기불선자이개지) 라고 공자가 말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착한 점을 골라서 따르고 나쁜 점은 살피서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멘토란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인덕이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등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나를

정상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멘토라고 칭하고 존경할 '탄' 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자격'을 항상 따지며, 그것이 충분치 않으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만 존경하는 사람도 많다. 무조건 세종대왕이니 이순신이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의 의미로 쓰이는 말이지만, 그 유래는 『오디세이아 Odyssey』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에서 기원한다. 다시 말해

꼭 나의 스승 등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역시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나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나보다 더욱 현명한 사람이 나에게 조언과 보살핌을 준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삶을 사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멘토를 만들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그의 삶을 지켜보고 진정으로 나에게 삶의 방향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자칫 거짓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을 함께하는 진정한 멘토가 있다는 것은 캄캄한 밤에 밝은 등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다. 여러분에게 삶을 나누어 줄 멘토를 만나라. 그것이 당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길이다. 진실되고 지혜로운 멘토를 만나라.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POSCO(00538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시장의 흐름을 코스피 지수의 숫자로만 판단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장을 대하고 있는 대부분 투자자가 느끼고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일부 초대형주들의 움직임으로 지수의 상승세를 만들고 유지하는 형국이다.

1월 설날을 전후로 시장은 외국인의 급격한 매수세의 유입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 냈

다. 하지만 지수의 상승 흐름과는 달리 대부분의 종목이 2월 이후 시간과 가격조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메이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작은 이번 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미리 조정을 받은 철강과 화학주의 움직임에서 읽어야 하

겠으며 이 업종이 상승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추가하락은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물을 매매하는 것은 시장의 상승을 제한 투자자에게 하락해서

안 되는 이들 업종에 관심을 뒤야 할 것이다. 시장이 상승한다면 이들 업종이 다음 흐름의 주도주로 나설 것이고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하락을 방어하는 완충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POSCO를 시장의 방향타로 삼을 수 있겠으며 매매에 가담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시점이다. 지금의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이 주도하는 흐름으로써 이 종목 역시 지난 1월 이후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결국 외국인은 포스코를 마지막 카드로 아껴두고 있는 것

이 아닌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본다.

이 종목에 대한 매매기준은 400,000원 이하 매수에 가담하고 385,000원을 손절가로 삼고 대응하면 될 것이다. 지금 외국인은 업황이나 기업의 내용보다는 우리나라는 사형국으로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은 편할 것이다.

-홈페이지 [www.502.co.kr](http://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